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학습 변인 간의 매개 경로 분석을 중심으로-*

전 요 한

Abstract

Jeon Yohan. 2017. 3. 31. A study on the effects of Korean language competence on academic achievements in international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path analysis among the learning variables. *Bilingual Research* 66, 131-158. This study aims to analyse a correlation between Korean language competence and academic achievements of international students through the mediation analysis using the variables such as ‘comprehension of lectures’, ‘learning attitudes’, ‘class satisfaction’, and ‘assessment system’. This study found that Korean language competence has a relatively strong correlation with academic achievements, and that there is a mediating path through which Korean language competence give a mediating effect to ‘comprehension of lectures’ and ‘learning attitudes’, finally to ‘academic achievements’, meaning that the better proficiency of Korean language brings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lass lectures, which ushers foreign students into the higher academic achievements. These findings suggest us that we should encourage foreign students to continue with the leveled up degree because it will both advance the degree of learning attitudes and in return lead towards better academic achievements, and that we should not set back by on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proficiency. This study shows that lowering the Korean language competence standards for international students would not be reasonable. This study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college admission officers are required to increase the entrance level of Korean language competence to allow international

* 이 논문은 2016년 담화인지언어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김고 다듬은 것이다.

students to be successful in college. (Yonsei University)

【Key words】 Korean language competence(한국어 능력), TOPIK(토픽), academic achievement(학업 성취도), predictive validity(예측 타당도), mediation analysis(매개 효과 분석), PROCESS(프로세스 프로그램), serial multiple mediator model(연속다중매개모형)

1. 서론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음을 대학 당국에 보여 주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교육부의 지침(교육부, 2015)에 따라 대학 당국은 토픽(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을 사용하고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의 평가 도구로서 토픽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한상미, 2009; 김성숙, 2013)에도 불구하고 토픽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일정 등급 이상의 토픽 점수를 획득하면 그 등급 기준에 따른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 대학의 학업 목적으로 토픽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¹⁾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은 입학 시에 토픽 3급의 점수를, 졸업 시까지 토픽 4급의 점수를 제출하면 된다(교육부, 2015).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픽 3급이나 4급 등 중급 정도의 한국어 능력으로는 대학 생활을 따라갈 수 없다는 연구(김지형, 2013)가 보고되어 있고, 학업을 포기하는 유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10%를 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신하영, 2011). 정남조(2010)에서도 학업 적응도와 가장 깊은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한국어 능력을 꼽고 있는 바, 한국어 능력이 충

1) 토픽의 공식 홈페이지 www.topik.go.kr 를 보면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부서로 되어 있고, 토픽 시험의 목적을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분치 않으면 대학의 학업 적응이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의 입학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이순철, 2015). 이러한 주장들에 순응하여 교육부에서도 이공계열에 대해서는 한국어 능력 급수를 3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교육부, 2014).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서 한국어 능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토픽 4급의 점수를 획득하였더라도 대학의 학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보고(김지형, 2013)는 토픽의 예측 타당도에 합리적 의심과 함께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성공적인 학업 수행은 학업 성취도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어 능력이 높으면 학업 성취도 역시 올라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가설을 검증해 보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만약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두 변수 사이에 다른 학습 변인이 매개 변수로 존재하는지, 매개 변수가 존재 한다면 어떤 매개 경로를 통하여 한국어 능력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선행 연구 고찰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안위·최영(201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안위·최영(2016)은 학부생 102명과 대학원생 51명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학부생 그룹은 대학에서의 첫 학기 학점을 종속변수로, 한국어에 대한 자기평가, 고등학교 학점, 나이, 성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대학원생 그룹은 대학원의 첫 학기 학점을 종속 변수로, 토픽 총점수, 학부 학점, 나이, 성별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학부생 그룹에서는 한국

어에 대한 자기 평가가 대학의 첫 학기 학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보였으며, 대학원생 그룹에서는 토픽 총점수와 대학원 첫 학기 학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의 특이한 점은 학부생 그룹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스스로 평가한 점수를 한국어 능력의 지표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인 한국어 자기 평가가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평가 도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의의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원생 51명을 상대로 토픽과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토픽이 예측 타당력이 있음을 실증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영어 숙달도 평가로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사용하고 TOEFL의 예측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Cho와 Bridgeman, 2012; Wait와 Gressel, 2009; Chen과 Sun, 2006; Van Nelson 등, 2004; Hu, 1991; Johnson, 1988; Graham, 1987; Light 등, 1987; Gue와 Holdaway, 1973). Cho와 Bridgeman(2012)는 미국의 10개 대학으로부터 2,594명의 학점과 TOEFL iBT 점수를 제공받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예측 타당도를 보여주는 TOEFL iBT의 가중 평균 상관계수가 대학원 학생 그룹에서는 $r_w = .16$ 으로, 학부 학생 그룹에서는 $r_w = .18$ 로 상당히 작게 나와서 TOEFL의 예측력이 크지 않다고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TOEFL iBT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더 높은 학점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Wait와 Gressel(2009)는 고등학교 점수, 성별, 국적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TOEFL과 학점과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TOEFL 점수와 학점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Gue와 Holdaway(1973)에서도 123명의 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TOEFL이 학업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predictor)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에 Chen과 Sun(2006)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나라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TOEFL과 학점과의 관계와 ESL 수강 여부와 학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TOEFL 점수와 입학 첫해의 학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ESL 수강 여부가 학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Graham(1987)은 TOEFL이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18건의 연구를 바탕으로 메타 분석을 하였는데, 연구의 결과들이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Light 등(1987)은 376명의 대학원 유학생을 상대로 TOEFL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TOEFL은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 유효한 변인이 아니라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학문 목적 언어의 숙달도 평가 도구로 TOEFL을 사용하였고, 학업 성취도는 대학 학점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TOEFL은 학문 목적 언어의 평가 도구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Douglas, 2013) TOEFL을 사용하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연구의 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고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Cho와 Bridgeman(2012)는 연구 결과가 상반되는 이유에 대해서 언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가 일대일의 평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데에 주목하였다. 즉 언어 능력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이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Simmer(1998)도 비슷한 분석을 보고하였는데, 학업 성취도는 언어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Van Nelson 등(2004)에서는 독립변수 조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토플 점수와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3. 한국어 능력

학문 목적 한국어와 관련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김정숙, 2000; 강현화·박동규, 2004; 신명선, 2006; 성아영·이경, 2016). 박석준(2008)은 공통 한국어를 포함하여 대학 등에서 교양 및 전공 교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한국어를 학문 목적 한국어로 규정하였고, 최정순·윤지원(2012)에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입학 전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업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한국어를 학문 목적 한국어라고 정의하였다. 학문 목적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영미지역에서는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과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그리고 일본에서는 EJU(Examination for Japanese University Admiss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등이 있다(심재경, 2014). 한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르는 한국어 능력 평가로 토픽이 있다. 그러나 토픽에 대해서는 이 평가를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일반 목적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보는 견해가 있다(한상미, 2009; 김정숙, 2011; 김성숙, 2013). 그렇다면 일반 목적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인 토픽을 가지고 학업 성취도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O'Sullivan(2012)은 학문 목적 평가인 IELTS를 이민 목적이나 사업 목적에 사용해 왔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특수 목적 언어 평가에 있어서 고유의 평가 영역을 넘어선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적절성에 대해서는 20년에 걸친 연구 주제이며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라고 하였다. O'Sullivan(2012)도 지적했다시피 숙달도 운동(proficiency movement)이 등장한 이후에 전문적 영역에 대한 평가라 할지라도 전문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평가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며, IELTS나 TOEFL 등이 구체적인 학문 목적 언어 영역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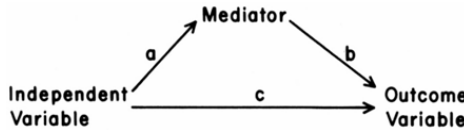
것이다. 또한 비즈니스 영역의 평가 도구로 알려진 TOEIC(the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에서도 완전히 비즈니스 영역의 평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반 언어 지식을 평가해 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토픽이 비록 일반 목적 한국어 능력의 평가 도구라 할지라도 학업 성취도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토픽을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의 측정 도구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말하기 평가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한상미(2009)에서도 학문 목적 한국어에서 말하기 능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말하기 능력의 측정 도구 개발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토픽의 말하기 평가 개발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반가운 보고(원미진, 2016)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토픽에 말하기 평가 영역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숙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Y대학교에서는 해당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필기시험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 최종 등급을 판정하고 있고, 대학 생활의 상황을 토대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의사소통 기능 전 영역에 걸쳐 한국어 숙달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있어서 말하기 평가가 빠진 토픽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한국어 능력이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토픽 등급과 연구 대상 대학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최종 판정 등급을 통계적으로 통합하여 단일 지표화한 점수로 표현되는 한국어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4. 매개 효과

최근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도 행동과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개 효과 분석을 도입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김춘주·강승혜, 2016; 이진녕, 2016; 최정선, 2015). 매개 효과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들의 관계를 제3의 변

수인 매개 변수를 통해 질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정선호 · 서동기, 2016). Baron과 Kenny(1986)에 의하면 매개란 자극이 유기체 내부에서 여러 가지 변형과정에 의해서 매개되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매개 효과는 외부의 물리적 사건이 어떻게 내부의 심리적 상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주는 효과이다.



<그림 1> 매개 효과 모형(Baron & Kenny, 1986)

<그림 1>은 매개 변수들의 인과 사슬 관계(causal chain)를 경로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경로 a는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경로 b는 매개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매개 변수 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경로 c에서 매개 변수를 투입한 후에 a와 c의 경로를 통제한 상태에서 유의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림 1>의 모형은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Baron과 Kenny, 1986).

매개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Dr. Andrew F. Hayes가 개발한 PROCES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Hayes(2013)에 따르면 매개 변수에 의한 간접 효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귀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자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하고 다중 조절된 매개 효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같은 반복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계산을 SPSS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PROCESS를 개발하였다고 하였다. PROCESS는 <http://www.processmacro.org/index.html>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료 프로

그램이며 기존의 SPSS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매크로 프로그램이다. PROCESS에는 76개의 미리 설정한 모형(template)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연구에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고 변수를 입력하면 쉽게 매개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PROCESS에서 매개 효과의 판별법은 다음과 같다. 즉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샘플을 추출하고 5,000번 반복 계산하여 부트 신뢰 구간의 하한 값(BootLLCI)과 상한 값(BootULCI) 사이에 0이 존재하는가를 판별한다. 만약 0이 존재하지 않으면 간접 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구동모, 2013). 본 연구에서는 SPSS 버전23에 PROCESS를 추가하여 선형 회귀분석과 매개 경로를 분석하였다.

5. 연구 방법

5.1.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에 보다 쉽게 입학하기 위하여 한국어 능력시험의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어 능력이 성공적인 학업 수행의 척도로 여겨지는 학업 성취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만약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가 보인다면 한국어 능력시험의 입학 기준을 낮추어도 좋다는 주장은 재고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설 1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한국어 능력은 학업 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독립변수들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에만 집중해 왔다. 예를 들면, 안위·최영(2016)에서도 나이, 성별, 입학 직전 학점, 토픽 점

수 등 개별 변수들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만 연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입학 전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입학 후 학습 이해, 학습 태도, 혹은 학업 만족 같은 학습 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들이 어떻게 학업 성취도로 연결되는지 하는 것이다. 즉 어떤 매개 경로를 통해서 한국어 능력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의 가설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한국어 능력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

5.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 및 양자를 매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Y대학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부생 5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에서는 수업 이해도, 수업에 임하는 태도, 강의 만족도, 평가 방식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유학생들은 2015년 1학기와 2학기에 입학한 외국 국적의 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외국인 유학생 분포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자	20	37.0
	여자	34	63.0
연령(만)	20세 미만	5	9.3
	20세 - 22세	39	72.2
	23세 - 25세	10	18.5
언어권	광둥어	3	5.6
	독일어	1	1.9
	러시아어	1	1.9
	스페인어	1	1.9
	영어	4	7.4
	일본어	11	20.4
	중국어	31	57.4
	태국어	1	1.9
	한국어(캐나다교포) ²⁾	1	1.9
총 계		54	100

그러나 설문에 참여한 54명의 학생들이 모두 한국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표 2>에 나타난 대로 전체 54개의 표본 중에서 토픽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표본이 27개, 한국어 연수기관에서 최종 수료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표본이 30개, 그리고 연구 대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판정한 한국어 최종 판정 등급을 학교 당국으로부터 직접 확보할 수 있었던 표본이 48개였다. 이 중에서 토픽 점수와 한국어 최종 판정 등급의 두 지표를 SPSS에서 변수변환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어 능력(KLC)이라는 단일한 변수를 도출하고, 이 변수에 해당하는 27

2) 이 학생은 캐나다 국적으로 본인의 모국어를 묻는 질문에 한국어라고 표시하였다. 이 학생은 한국어 공부기간이 21개월이라고 답했으며 토픽 등급은 6급에 해당하였다. 설문지 답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 되어 포함시켰다.

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2> 연구 대상의 한국어 능력 지표별 분포

변수	구분	빈도(명)	합계(명)	비율(%)
토픽 점수	3급	5	27	18.52
	4급	7		25.93
	5급	8		29.63
	6급	7		25.93
한국어 최종 판정 점수	1급	6	48	12.50
	2급	9		18.75
	3급	12		25.00
	4급	5		10.42
	5급	7		14.58
	6급	9		18.75
한국어 교육기관 수료 등급	1급	1	30	3.33
	2급	6		20.00
	3급	5		16.67
	4급	6		20.00
	5급	5		16.67
	6급	7		23.33

5.3. 연구 절차

5.3.1. 주요 변인의 설정

학업 성취도의 측정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학점(GPA)을 사용하였다. Kuncel 등(2007)은 대학의 학점이 상대적으로 획득하기 쉬운 자료이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의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연·신효진(2012)에서는 학업 성취도는 교육 혹은 수업을 받은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량으로서 한 학기 강의가 끝난 이후에 그 과목의 교수로부터

받는 점수나 학점으로 산출된다고 하였으므로 대학의 학점을 학업 성취도의 지표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작성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학교 측으로부터 직접 학점을 제공받았다. 학생들은 주로 2015년 3월에 입학한 학생들이지만 일부 학생들은 한국어 숙달도의 문제로 1학기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여 주로 2015년 2학기 성적과 2016년 1학기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 언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에서 첫 학기 학점을 사용한 연구(안위·최영, 2016; Light 등, 1987; Van Nelson, 2004)가 있는 반면, 누적 학점을 사용한 연구(Cho와 Bridgeman, 2012; Gue와 Holdaway, 1973)도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도 지표로 2016년 1학기 현재의 누적 학점을 사용하여 종속 변인으로 삼았다.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전술한 <표 2>와 같이 세 가지가 있었다. 이들 지표 중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료 등급은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어 능력을 평가한 지표가 아니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토픽 점수와 한국어 최종 판정 등급이 <표 3>에 나타난 대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두 지표를 변수변환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한 한국어 능력(KLC) 지표를 독립 변인으로 정하였다.

<표 3> 한국어 능력 지표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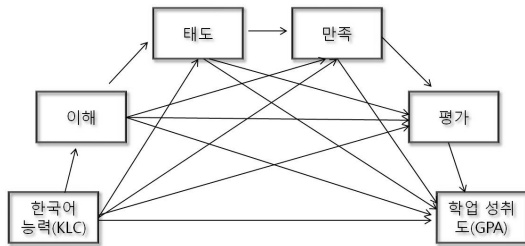
		한국어 최종 판정 등급	연수 기관 수료 등급	토픽
한국어 최종 판정 등급	Pearson 상관	1	.693**	.818**
	N	48	30	27
연수 기관 수료 등급	Pearson 상관	.693**	1	.630**
	N	30	30	18
토픽	Pearson 상관	.818**	.630**	1
	N	27	18	27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일반적으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 효능감(김춘주·강승혜, 2016), 고등학교 내신성적(김상호, 1995), 시설 만족도(양지운, 2012), 수업 만족도(이경희·김지연, 2014) 등이 언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경희·김지연(2014)에서는 Marzano(2001)의 연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학습 태도, 학습 이해, 학습 흥미 등의 학습자 수준의 요인이 학업 성취도에 80%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수업 이해도, 학습 태도, 강의 만족도, 학생들이 느끼는 평가의 적절성 등의 학습자 수준의 요인들을 매개 변수로 설정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5.3.2. 연구 모형

한국어 능력, 이해, 태도 만족, 평가 등의 변인들이 학업 성취도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3을 활용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Dr. Hayes가 고안한 PROCESS(Hayes, 2013)을 이용해서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 변인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어떤 매개 경로를 통해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매개 변수의 연속다중매개모형(PROCESS template 6번)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속다중매개모형

6. 연구 결과 및 논의

6.1 요인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학생들에게 수업의 이해도, 학습 태도, 강의 만족도와 평가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설문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표 4>와 같이 요인 분석을 하였다. 본 모형은 KMO-Barlett 검정을 실시하여 KMO 값이 .754가 나왔고, 직각 회전 방식으로 베리맥스 회전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2개 이상의 요인에서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이 나온 것은 중복 적재로 보고 문항을 삭제하였다. 각 요인 별로 Chronbach Alpha 값이 모두 0.7을 넘었으므로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형석, 2005).

요인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추출되었다. 제1 요인으로 강의 이해, 강의 프레젠테이션 이해, 교재 이해, 판서 이해로 구성되는 학업 이해도(이해), 제2 요인으로는 출석, 과제 제출, 연습·복습, 강의 집중으로 구성되는 학습 태도(태도), 제3 요인으로는 강의 만족, 추천 의향, 재선택 의향으로 구성되는 강의 만족도(만족), 제4 요인으로는 서술형 평가 문항 적절성, 평가 방식의 타당성, 평가 방식의 차이로 인한 영향 등으로 구성되는 평가 방식의 적절성(평가)으로 추출되었다.

<표 4> 요인 분석 결과

설문 문항	요인			
	이해	태도	만족	평가
1. 교수님의 강의를 잘 이해하였습니까?	.844	.330	.055	.144
2. 강의 PPT를 잘 이해하였습니까?	.791	.177	.095	.194
3. 강의 교재를 잘 이해하였습니까?	.868	.049	.162	.055
4. 칠판 판서 내용을 잘 이해하였습니까?	.834	.285	.081	.101
5. 수업에 성실히 참석하였습니까?	.241	.806	-.064	.035
6. 과제를 제때에 잘 제출하였습니까?	.014	.602	.400	.130
7. 예습/복습을 충실히 하였습니다습니까?	.191	.751	.002	-.022
8.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하였습니까?	.231	.775	.147	.112
9. 교수님들의 강의에 만족하십니까?	.036	.111	.750	.362
10. 다른 친구들에게 본인이 수강했던 수업과정을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173	.232	.747	.258
11. 과거로 돌아간다면 본인이 수강했던 수업과정을 다시 선택할 의향이 있습니까?	.149	-.059	.858	-.010
12.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에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020	.272	.106	.796
13. 서술형 평가 방식이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84	-.138	.264	.769
14. 평가 방식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479	.051	.172	.654
고유값(eigen value)	3.251	2.566	2.199	1.953
분산설명(%)	23.219	18.332	15.704	13.949
누적설명(%)	23.219	41.552	57.255	71.205
신뢰도(Cronbach's Alpha)	.904	.772	.774	.725

KMO = .754, Barlett의 구형성검정 카이제곱 = 376.803 (자유도 = 91, 유의확률 = .000)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표 5>와 같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 능력과 학점의 상관 계수가 .641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능력은 학점 이외에도 이해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학점은 한국어 능력 외에 태도 요인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만족요인은 태도, 이해,

평가와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정작 학점이나 한국어 능력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인과적 관계를 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결과

	GPA	KLC	태도	이해	만족	평가
GPA	1	.641**	.283*	.196	-.060	-.181
KLC	.641**	1	.277	.518**	-.010	-.049
태도	.283*	.277	1	.460**	.342*	.250
이해	.196	.518**	.460**	1	.326*	.445**
만족	-.060	-.010	.342*	.326*	1	.538**
평가	-.181	-.049	.250	.445*	.538**	1

**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6.2 한국어 능력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 능력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학점을 종속변수로, 한국어 능력, 이해, 태도, 만족, 평가 등의 학습 요인을 독립변수로 지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본 회귀 모형은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값이 .713이므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잔차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이 2.749로 0과 4 사이에서 2에 근접하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F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이므로 0.01 수준에서 이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변수들 간의 간섭 현상을 보여주는 VIF(variance influence factor) 수치가 각 요인별로 1.217에서 1.991까지 분포하여 변수들 간에 다중 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

<표 6>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B	베타	t	P	VIF
KLC	GPA	.380	.720	4.954	.000	1.544
이해		-.379	-.416	-2.521	.020	1.991
태도		.444	.486	3.719	.001	1.246
만족		.257	.305	2.364	.028	1.217
평가		-.109	-.098	-.698	.493	1.432

$R^2 = .713$ Durbin-Watson = 2.749 $F = 10.411$ $p = .000$

한국어 능력(KLC)이 학업 성취도(GPA)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한국어 능력 변인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p값이 .000이므로 ‘가설 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여 한국어 능력은 학업 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의 베타 값이 .720이므로 다른 변인들보다 학업 성취도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안위·최영(2016)은 대학원생 그룹에서는 토픽으로 표현된 한국어 능력이 학업 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지만 학부생 그룹에서는 토픽과 첫 학기 학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누적 학점을 사용하였기에 학부생 그룹에서도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에 높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Cho와 Bridgeman(2012)에서도 누적 학점을 사용하였는데, 비록 상관계수의 값이 매우 작았다고 보고하였지만 TOEFL iBT점수가 학업 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한국어 능력이 학업 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고찰한 많은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태도 요인은 p값이 0.001이고 베타가 .486으로 두 번째로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능력과 무관하게 내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학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학업

태도가 학업 성취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심원보, 2007; 김양분 등, 2016). 본 연구는 언어 능력과 관련해서도 역시 학습 태도가 학업 성취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이한 것은 회귀분석에서 이해 요인의 회귀 계수가 학업 성취도와 역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만족 요인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가 회귀 분석에서는 정의 관계(회귀 계수 = .257, 유의수준 = .028)에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언어 능력과 관련 없이 일반적인 교육 분야에서는 수업 이해도가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김은혜, 2016)이 보고된 바 있지만 언어 능력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연구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표 5>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보면 이해요인은 학업 성취도와는 상관관계가 없으나 한국어 능력과는 상대적으로 강한 상관관계에(상관계수 = .518) 있고 태도 요인과의도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상관계수 = .283)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 이해 요인과 태도 요인이 어떤 매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더 알아보기로 하겠다.

만족 요인에 대해서는 언어 능력과 관련 없이 다른 교육적 연구 분야에서 학습 관련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 만족도가 학업 성취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김선연 · 신효진, 2012)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임연옥 · 이옥화, 2008; 이경희 · 김지연, 2012) 등 서로 상반되는 보고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 역시 언어 능력과 관련해서 학습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를 연구한 선행 연구를 찾아 볼 수 없어서 만족 변인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만족 변인이 회귀분석에서는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나온 것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표본의 수가 적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등 추론이 가능한 부분은 있으나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뛰어 넘는 연구이므로 추가적인 후속 연구에 넘기도록 하겠다.

6.3.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의 매개 효과 및 경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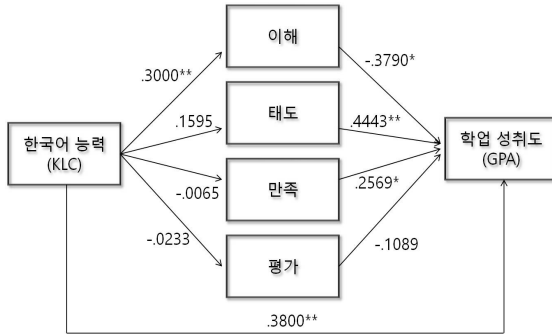
한국어 능력을 독립변수로 하고 학업 성취도를 종속변수로 지정하고 이해, 태도, 만족, 평가 요인을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매개 효과 및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PROCESS 프로그램에서 미리 제공한 모형(template)중에서 4번 모형을 지정한 다음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회 반복 계산을 선택하고 부트스트랩 방법으로는 Bias Corrected를 선택한 다음에 95% 신뢰 구간에서 프로그램을 구동하였다.

<표 7> 병렬다중매개모형 분석 결과

매개 변수	종속 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p	LLCI	ULCI	모형 요약
이해	학업성취도 (GPA)	-.3790	.1503	-2.5209	.0199	-.6916	-.0663	R ² : .7125 F: 10.4111 p: .0000
태도		.4443	.1195	3.7192	.0013	.1958	.6927	
만족		.2569	.1087	2.3645	.0278	.0309	.4829	
평가		-.1089	.1559	-.6985	.4926	-.4330	.2153	
KLC		.3800	.0767	4.9544	.0001	.2205	.5395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p	LLCI	ULCI	
한국어 능력 (KLC)	이해	.3000	.0991	3.0267	.0057	.0958	.5041	
	태도	.1595	.1108	1.4391	.1625	-.0688	.3878	
	만족	-.0065	.1253	-.0518	.9591	-.2646	.2516	
	평가	-.0233	.0947	-.2465	.8073	-.2183	.1716	

이 모형은 R² 값이 .7125로 높게 나온 편이어서 분석의 설명력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부트스트랩 하한선(LLCI)과 상한선(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부트스트랩 판별법에 따라서 살펴보면, 한국어 능력과 이해 요인이 유의한 관계에 있고, 이해, 태도, 만족 변인은 학점과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족 요인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추후의 후속 연구에서 좀 더 정치하게 설명되어 질 것을 기대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병렬매개모형

병렬매개모형을 보면 한국어 능력과 이해 요인 사이에는 정의 영향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해 요인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어 능력을 갖추면 분명히 수업에서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지만 수업을 이해했다는 것만으로는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의 학점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만 가지고 산출되지 않고, 출결, 과제, 발표 등의 종합적인 점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수업을 이해했다고 자만해서 추가적인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학업 성취도에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어서, 한국어 능력은 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그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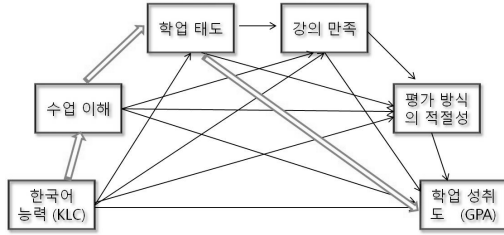
한다고 학습 태도까지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학습 태도는 확실히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심원보(2007)에서도 학습 태도는 다른 어떤 변인보다도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병렬 매개 모형만 가지고는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 분명히 드러나는 매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해 요인과 태도 요인은 피어슨 상관계수가 .460으로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바가 있어서 이해 요인과 태도 요인이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연속다중매개모형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였다.

연속다중매개모형은 PROCESS에서 미리 제고한 모형(template) 6번에 해당하는 모형이다. PROCESS 프로그램에서 모형 번호 6번을 입력하고 종속변수로 학업성취도를, 독립변수로 한국어 능력을, 매개 변수로 이해, 태도, 만족, 평가를 투입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회 반복 계산을 선택하였고, 95% 신뢰수준에서 프로그램을 가동하였다. Hayes(2013)는 이 연속다중매개모형의 장점을 매개 경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매개 경로는 간접효과로 나타내는데 ‘한국어 능력-이해-태도-학업성취도’에 해당하는 경로가 부트스트랩 하한선(LLCI)이 .0083이고 상한선(ULCI)이 .1640으로 0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간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라고 하겠다.

<표 8> 연속다중매개모형

Direct effect of KLC on GPA					
Effect	SE	t	p	LLCI	ULCI
.3800	.0862	4.4055	.0002	.2006	.5593
Indirect effect of KLC on GPA					
Indirect Path	Effect	SE	LLCI	ULCI	
KLC-이해-태도-GPA	.0527	.0344	.0083	.1640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연속다중매개모형

한국어 능력은 학업 성취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의 효과는 .380으로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은 수업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수업 이해는 다시 학업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중국에는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모형의 효과의 크기는 .0527로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ackett 등(2008)에서 언급한 것처럼 효과의 크기가 극히 미약하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7. 연구의 한계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와 양자를 매개하는 매개 요인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표본의 수가 충분치 않았다는 데 있다. 현 대학의 제도상, 토픽 점수가 없이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에 입학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유학생들이 토픽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대학 당국에서 전체 유학생들의 자료 제공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의 확보가 어려운 이유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표본 수의 부족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

소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어 능력이 학업 성취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비록 미약한 효과이지만 한국어 능력이 이해 요인과 태도 요인을 매개로 하여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경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즉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강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강의를 잘 이해할수록 학습 태도가 좋아지며, 개선된 학습 태도는 더 향상된 학업 성취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인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의 향상에 힘을 쏟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수업의 이해도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 수업의 이해가 학습 태도를 변화시키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학업 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입학에 더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토픽)의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국어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야 학업 성취도 역시 같이 올라가는 것인데, 한국어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업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강현화·박동규(2004). 학문 목적의 병존 언어 교수 모델 적용 연구 - 경영학 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15권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22쪽.
- 교육부(2014).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발표,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9&boardSeq=52802&lev=0&searchType=S&statu sYN=W&page=57&s=moe&m=0201&opType=>)교육부.
- 교육부(2015).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 교육부.

- 구동모(2013). SPSS, LISREL, PLS 및 PROCESS를 활용한 기초, 조절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학현사.
- 김상호(2012).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대학 학업 성적과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10권,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91쪽~111쪽.
- 김선연·신효진(2012). 대학생의 학과교수 만족도 구성요인 타당화 및 학업 성취도와와의 관계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9권1호, 한국교원교육학회, 207쪽~226쪽.
- 김성숙(2013).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숙달도 평가 연구, <한국어 교육> 24권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57쪽~80쪽.
- 김양분·신혜진·강호수(2016). 초등학교 학업 성취도와 학업 성취도 변화 관련 변인 비교 분석, <한국교육> 43권2호, 한국교육개발원, 33쪽~66쪽.
- 김은혜(2016). 회계학 영어강의 수강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강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21권4호, 대한회계학회, 157쪽~179쪽.
- 김정숙(2000).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 대학 진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1권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19쪽.
- 김정숙(2011). 한국어 능력 시험 체제 개선 연구, 한국어 능력 시험 정책 연구과제 보고서, 교육기술과학부.
- 김지형(2013).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체계와 내용, <영주어문> 26집, 영주어문학회, 75쪽~106쪽.
- 김춘주·강승혜(2016).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와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스캐폴딩의 지식 공유 활동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7권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23쪽.
- 박석준(2008). 국내 대학의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 현황 분석 - 입학 후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9권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32쪽.
- 성아영·이경(2016).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 및 연구 방안 제언, <새국어교육> 106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67쪽~299쪽.
- 신명선(2006).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의 내용 연구, <한국어 교육> 17권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7쪽~264쪽.
- 신하영(2011). 외국인 유학생 급증의 명암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022>), 한국 대학 신문.
- 심원보(2007). 학습자의 가정환경, 사교육, 학습태도 및 독서향유도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재경(2014).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 시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국외 학문 목적 외국어능력시험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위·최영(2016).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4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 학당, 195쪽~221쪽.
- 양지운(2012). 대학생 시설 만족도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 연구: 학습태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미진(2016).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말하기 평가 개발을 위한 모의시험 개발 절차,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pp. 164~170.
- 이경희 · 김지연(2014).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학습 동기, 수업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Internatio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7권4호, 한국성인교육학회, 33쪽~57쪽.
- 이순철(2015). 한국어 능력 시험(토픽) 완화의 필요성과 대책, (<http://news.unn.net/news/articlePrint.html?idxno=147047>), 한국대학신문.
- 이진녕(201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학업 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권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629쪽~650쪽.
- 이형석(2005). 실증논문작성을 위한 연구방법론, 토마토.
- 임연옥 · 이옥화(2008). 사이버 학습자의 학습 참여도, 학습 만족도,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 연구, <열린교육연구> 16권2호, 한국열린교육학회, 177쪽~200쪽.
- 정남조(2010).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 요인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선호 · 서동기(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 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권 1호, 한국심리학회, 257쪽~282쪽.
- 정진옥(201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읽기 영역 평가 문항의 내용 타당도 분석 - 21회~25회 중급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정선(2015). 중국인 학습자가 지각한 한국어 교사의 자율성지지, 학업 참여, 학업 성취도의 관계 - 자기 결정 동기의 매개 효과, <새국어 교육> 104권, 한국국어교육학회, 401쪽~428쪽.
- 최정순·윤지원(2012).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본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 연구의 실태와 제언, <어문연구> 74집, 어문연구학회, 131쪽~156쪽.
- 한상미(2009).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 연구 - 대학 입학 전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0권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7쪽~238쪽.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 1173~1182.
- Chen, Y. T. & Sun, C.(2006). Language proficiency and academic performance, Proceedings of the 11th Conference of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pp. 58~72.

- Cho, Y. & Bridgeman, B.(2012). Relationship of TOEFL iBT scores to academic performances: Some evidence from American universities, <Language Testing> Vol.29 No.3, pp. 421~442.
- Douglas, D.(2013). *Assessment of academic language for specific purposes*, *The Encyclopedia of Applied Linguistics*, Blackwell Publishing Ltd.
- Hayes, A. F.(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u S. P.(1991). English Proficiency and academic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issippi.
- Graham, J. C.(1987).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nd the Prediction of academic success, <TESOL Quarterly> Vol.21 No.3, pp. 505~522.
- Gue, L. R. & Holdaway, E. A.(1973). English proficiency tests as predictors of success in graduate studies in education, <Language Learning> Vol.23 No.1, pp. 89~103.
- Johnson, P.(1988).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nd academic performance of undergraduate international students, <TESOL Quaterly> Vol.22 No.1, pp. 164~168.
- Kuncel, N. R., Crede, M. & Thomas, L. L.(2007). A meta-analysis of the predictive of the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GMAT) and undergraduate grade point average(UGPA) for graduate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Academic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Vol.6 No.1, pp. 51~68.
- Light, R. L., Xu, M. & Mossop, J.(1987). English proficiency and academic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TESOL Quaterly> Vol.21 No.2, pp. 251~262.
- Marzano, R. J.(2001). *A new era of school reform going where the research takes*, Aurora, CO: Mid-continent Research for Education and Learning.
- O'Sullivan, B.(2012). Assessment issues in languages for specific purpose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96, Focus Issue, pp. 71~88.
- Sackett, P. R., Borneman, M. J. & Connelly, B. S.(2008). High-stakes testing in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Appraising the evidence for validity and fairness, <American Psychologist> Vol.63 No.4, pp. 215~227.
- Simmer, M. L.(1998). Use of the TOEFL as a standard for university admission: a position statement by the 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Vol.14 No.3, pp. 261~265.

- Van Nelson, C., Nelson, J. S., & Malone, B. G.(2004). Predicting success of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in an academic university, <College and University Journal> Vol.80 No.1, pp. 19~27.
- Wait, I. W. & Gressel, J.(2009). Relationship between TOEFL score and academic success for international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Vol.98 No4, pp. 389~398.

전요한(Jeon Yohan)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전화번호: 02-2123-8489

전자우편: biodent@yonsei.ac.kr

접수일자: 2017년 1월 30일

심사(수정)일자: 2017년 3월 3일

게재확정: 2017년 3월 17일